

“프로야구 10구단 부영 드래곤즈로 ... 호남 야구 르네상스 열어야”

수도권 4·영남 3·호남 1팀 ... 수원 KT 가세 땀 불균형 심각

김봉연·최형우 등 스타 배출한 전북 ... 야구 열기도 뜨거워

‘부영 드래곤즈’가 전북에 날개를 펼 수 있을까?

7일 프로야구 10구단 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 마감된다. 전북을 안방으로 한 부영과 수원을 연고로 한 KT를 놓고 최후의 평가가 시작된다.

전북은 ‘부영 드래곤즈’라는 이름으로 회원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다. 지역민들은 호남의 야구 열기가 드래곤즈라는 이름으로 날개를 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수도권에 4개팀 밀집, 지역안배

올 시즌 신생팀 NC 다이노스가 출범하면서 9개 구단이 우승을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됐다. NC의 합류로 삼성·롯데와 함께 경쟁도에는 3개의 프로야구 팀이 운영된다. 수도권에는 잠실 한 지붕 두 가족 두산·LG와 목동구장을 사용하는 넥센 그리고 인천을 대표하는 SK 등 4개 팀이 밀집해 있다. 수원까지 들어서게 되면 10개 팀의 절반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

김봉연·김상현·김일권·조계현·조규제·김상현·정재현·이진영·이승호·차우찬 등이 군산상고 출신이고, 전주교에서는 김일형·박경관·최형우·박정권·신운용 등의 스타가

나왔다. 전북은 ‘역전의 명수’로 통한 군산상고를 필두로 수많은 프로야구 전설과 스타를 탄생시킨 야구의 중심지이지만 명맥을 잇는 프로 구단이 없다.

수원 유치는 다른 지역팀들에게도 불리한 구조다. 한국체대 스포츠분석센터 김세형 박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전북 체제에서는 비수도권 구단이 수도권 구단에 비해 10% 더 많이 이동하는 반면, 수원에 10구단이 들어오면 비수도권 구단이 34% 더 많이 이동을 해야 한다.

원정 이동 거리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각 구단의 공평성에서도 전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북과 부영의 입장이다.

◇앞선 인프라와 호남의 야구 열기

수원과 KT가 290억원을 들여 수원야구장을 증·개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북과 부영은 1100억원을 투자해 전주에 전용 야구장을 신축한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옆 총부지 6만㎡에 세워질 신축야구장은 편의시설과 주차장 부지가 3만6500㎡로 국내 야구장 중 최다인 3280대의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고속버스



전북과 부영이 지역 형평성과 야구 인프라 우위를 앞세워 전북의 10구단 창단을 노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부영·전북 제10구단 창단 선포식. /연합뉴스

터미널(7km)과 전주역(10km)에서 가깝고 전주 IC와 3분 거리로 전북도와 광주·대전에 접근성도 좋다. 또 170억원과 9억7500만원을 들여 군산월명구장과 익산야구장 개보수도 진행할 예정이라 야구장 인프라 면에서 수원에 한발 앞서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야구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전북은 7일 회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102만명의 10구단 유치 지지 서명부와 대형 사인볼을 KBO에 전달한다.

‘부영·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추진위원회’가 경희대 스포츠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전주·군산·익산·완주 주민 3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1대1 대면 심층설문 조사에서도 93%가 전북 연고 10구단의 창단을 지지하고, 응답자의 89.7%는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중 40.8%는 홈구장 연고티켓을 구매하겠다고 부응에 힘을 실었다.

군산상고 출신의 ‘프로야구 레전드’ 김준



10구단이 전북에 유치되면 월드컵 축구경기장 옆에 들어설 전주 전용 야구장의 조감도 (전북도 제공)

한 원광대 감독은 “당연히 10구단은 전북에 들어와야 한다. 흥행 쪽에서 수원을 얘기하는 데 인구가 많고 흥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원 야구장의 지점과 교통편이 좋은 편이 아니다. 무엇보다 전북 지역민들의 열기와 관심이 뜨겁다”며 “군산상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야구가 꽃을 피운 지역이다. 지역 꿈나무들과 야구인들에게 10구단은 기회이고 열망이다”고 말했다.

쌍방울의 흥행 실패에 대해서는 “쌍방울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당시에는 준비가 부족했다. 특히 전주 야구장은 제일 낙후된 구장이었다. 규모는 둘째치고 낙후된 경기장을 쓰면서 팬들에게 미안할 정도였다”며 “하지만 최신식 야구장이 들어서고 기업과 지역의 관심과 지원도 활발하다. 흥행성이나 흥행, 인프라면에서 전북의 10구단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UN “올해는 지키는 야구”

김진우·외국인 투수로 마무리 ... 양현종 선발 예고

KIA 마운드의 ‘과를 맞추기’가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 투수조가 지난 4일 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갖고 2013시즌 일정에 돌입했다. 7일 훈련에 들어가는 타자들에 앞서 일찍 시동을 건 투수들은 오는 13일 미국 애리조나로 이동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선다.

선동열 감독이 구상하는 마운드의 큰 조각은 마무리다.

지난 시즌 뒷심 부족으로 고전을 해왔던 만큼 든든한 마무리를 배치해 ‘지키는 야구’를 하겠다는 계산이다. 9구단 홈수업 체제는 변수도 마무리 급구에 영향을 미쳤다. 중간 중간 경기를 쉬면서 생기는 선발·볼펜 운영의 여유를 전략적으로 활용, 앞서가는 경기는 든든한 마무리를 앞세워 확실히 잡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마무리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뒷문을 책임졌던 한기주가 손가락 수술과 어깨 통증으로 재활중이고, 지난해 깜짝 마무리로 활약했던 최향남의 꾸준함은 미지수다. 결국 선발에서 마무리를 구하겠다는 것이 선동열 감독의 복안이다.

선 감독은 “지난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뒤집히는 경기가 많았는데 전지훈련에서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확정짓 생각이다.

선발진 중에서 찾고 있다. 김진우와 외국인 선수 중에서 낙점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선발진의 마무리 이동이 예고된 만큼 양현종은 마운드 구성의 마지막 조각이다.

선 감독은 “양현종은 무조건 선발로 쓸 생각이다. 이번 캠프에서 투수들이 2000개 이상의 공을 던졌다. 양현종도 많이 좋아졌는데 80개 이상 던지면 밸런스가 흐트러진다. 한번 흔들리면 빨리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다. 심리적으로만 좋은 것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교정해야 한다”고 양현종의 역할을 강조했다.

2년차 박지훈과 좌완 진해수는 볼펜의 기대주다.

후반기 급격히 무너지며 아쉬움을 남겼던 박지훈은 마무리 캠프에서 체력 훈련에 중점을 두며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연습 경기에서는 145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스피드까지 끌어올렸다.

진해수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피칭으로 좌완 가풍에 시달리는 KIA 볼펜의 희망으로 주목 받고 있다.

토종 선발진의 양축 윤석민과 서재응의 2013시즌에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라는 변수가 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예년보



양현종

다 일찍 시즌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두 선수에게는 속제가 될 전망이다.

서재응은 9일 재활조와 함께 일찍 미국으로 들어가 몸 준비에 속도를 낸다. 서재응과 동행할 예정이었던 윤석민은 도핑 테스트와 14일 대표팀 유니폼 발표 행사 참가 문제로 20일 캠프에 합류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두산 선수들 소아암 어린이 돕기 일일호프

한기주·안치홍·이원석·김현수

애장품 경매행사로 성금도 모아

KIA와 두산의 스타선수들이 선혈을 위해 땀 흘렸다.

지난 3일 서울 압구정에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일일호프가 열렸다. 이날 행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이는 한기주·안치홍(이상 KIA), 이원석·김현수(이상 두산) 등 프로야구 선수들. 이들은 장소 섭외와 현수막 제작, 서빙과 테이블 정리까지 멀티 플레이어로 맹활약했다.

선수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소식이 도심을 공회 돌린 한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야구팬들이 발길을 하면서 행사는 성황을 이뤘다.

KIA의 김주일 응원단장과 ‘미녀 마술사’ 박보라, 모델 송하나, 배우 김영옥·한정원, 가수 리아킵·지환 등 연예인들도 손길을 더하며 이웃 사랑을 힘을 도왔다.

애장품 경매 행사를 통해 5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한기주의 글러브와 이원석의 유니폼이 100만원으로 최고가를 장식했으며, 안치홍과 김현수의 방망이가 각각 80만원과 70만원에 낙찰되는 등 경매 행사의 열기도 뜨거웠다.

프로야구 4인방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 1



프로야구 KIA와 두산의 안치홍·한기주·김현수·이원석(오른쪽부터)이 지난 3일 서울 압구정에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일일호프를 열었다.

월에도 똑거노인 돕기 일일호프를 열면서 선혈으로 새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투병을 하던 이두환을 돕기 위해 기획됐었다.

한기주는 “(이)두환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일찍 우리 곁을 떠나버려서 마음이 아프다. 행사를 고민하다가 앞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 싶어서 다시 모이게 됐다”며 “뜻깊은 행사로 새해를 맞는 만큼 자리에 함께 해준 선수들도 부상 없이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하길 바란다. 나도 재활 잘해서 팀 우승에 힘을 더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치홍은 “좋은 일로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하게 됐다. 올 시즌 개인적으로 특별한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팀 승리와 우승에 초점을 맞추고 시즌을 보내겠다. 성적도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기주의 동성고 1년 선배인 이원석은 “선수들에게는 부상 없이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상 없이 꾸준한 활약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기주의 절친 김현수는 “친구의 부탁이라 올해도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스프링 캠프 잘 치르고 올 시즌 준비 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일호프와 애장품 경매 수익금은 순천향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 기부할 예정이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셔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ju.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6-8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겨울여행의 메카 강원도로 떠나요

1월 출발일 1월달 매주 토요일/일요일 5,6,12,13,19,20,26,27일

평창 휘닉스파크스키 ₩95,000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에서 즐기는 스키 포함사항:왕복28인승버스, 리프트이용권, 렌탈50%할인권

백두대간 선자령 풍차길 눈꽃트래킹 ₩45,000원
대관령기상대 - 양떼목장 - 통진중개소 - 동해바다조망 - 정상(1,157m) - 하산 4-5시간 트래킹

강릉 안목항 커피거리 + 커피박물관 ₩60,000원
대한민국 최초 커피박물관 관람 및 체험관광 안목항 커피거리 자유시간
협찬: 사방관방부어